2022년 1월 한국 영화 톱스타들 스크린 빅뱅

권상우·설경구·한지민이 한 판 붙는다

한지민 등 14인 출연 '해피뉴이어'
권상우·한효주·이광수 주연 '해적'
박소담 '특송', 최우식 '경관의 피'
설경구·이선균 '킹메이커' 줄개봉

2022년 1월, '화려한 빅뱅'의 스크린이 펼쳐진다. 한국영화를 이끌어온 중견부터 차세대 연기자들까지 톱스타급 배우들의 흥행 대결이다. 관객은 한국영화의 현재 주역들을 동시에 만나는 '성찬의 밥상'을 맛보게 됐다.

2022년 새해 1월은 톱스타급 연기자들의 스크린 공략과 함께 문을 연다. '해적:도깨비 깃발'의 권상우, '해피 뉴 이어'의 김영광·한지민, '경관의 피'의 조진웅·최우식(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그 주역이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CJ ENM·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멀티 캐스팅의 힘으로

숟가락을 먼저 올려놓는 이들은 이달 29일 개봉하는 '해피 뉴 이어'의 한지민·이동욱·강하늘·고성희·임윤아 등이다. 정진영·이혜영 등 중견과 김영광·원진아 등도 가세한다. 호텔을 배경으로 일곱 커플의 로맨스를 그린다. 각기 사연을 하나로 엮어낸다.

이 같은 '멀티 캐스팅'의 힘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설 연휴를 노리는 '해적:도깨비 깃발'이다. 2014년 흥행작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편으로, 권상우·한효주·강하늘·이광수 등을 내세운다. 김성오·채수빈 등 개성 강한 연기자들도 힘을 보탠다. 사라진 왕실의 보물을 손에 쥐려는 해적들의 이야기로 이들은 검술 액션의 현란함도 선보인다.

●노련함의 중견부터 차세대 주역까지

스타성에 맞서는 건 노련함이다. '킹메이커'의 설경구와 이선균도 설 연휴에 나선다. 한국영화의 대표적 배우로 꼽혀온 설경구와 안정적인 연기로 관객 신뢰를 얻어온 이선균이 '해적:도깨비 깃발'의 후배 스타들과 경쟁한다. 설경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를, 이선균은 그를 돕는 선거전략가를 연기하며 수단과 목적의 정의를 묻는다.

이선균과 함께 호흡을 맞춘 '기생충 남매' 최우식과 박소담도 새해 스크린을 채운다. 최우식은 1월5일 개봉작 '경관의 피'로, 박소담은 일주일 뒤 선보이는 '특송'으로 맞대결한다. 최우식은 조진웅을 파트너 삼아 느와르와 스릴러가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펼친다. 비리 의혹을 받는 형사 조진웅을 쫓는 신입경찰이다. 박소담은 처음으로 액션 연기에 도전하며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특송전문 드라이버 역으로 핸들을 쉼 없이 돌린다.

이처럼 차세대 스크린 주역으로 인정받는 이들과 함께 중견은 물론 신진까지 1월 극장가에 대거 나서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이어간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설강화' 논란 가열…시민단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역사 왜곡' 파문 갈수록 거세져
일각선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
혼란 속 OTT 5개국서 5위권 진입

JTBC 드라마 '설강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JTBC

JTBC '설강화:스노우드롭'(설강화)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22일 '설강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비판하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강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드라마 첫 방송 이후 쏟아진 시청자 비판의 연장선상이다. 일부 시청자는 드라마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요원을 긍정적인 캐릭터로 미화했다'는 등 비판하고 있다. 세계시민선언 이설아 공동대표는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드라마가 "국가폭력을 미화했다"면서 "남파간첩인 주인공이 운동권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3월 '설강화' 시놉시스의 캐릭터 설명 등이 알려진 뒤 또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더욱 거세진다. 당시 제작진은 "민주화운동 이야기가 아니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방송분에서는 여주인공 이름이 바뀌었을 뿐 주요 설정에 거의 변화가 없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도 "독재정권의 간첩 조작 등에 의한 피해자가 살아있다"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JTBC는 21일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방송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22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다. 이를 흔드는 자들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혼란 속에서도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로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는 한국과 홍콩 등 5개국에서 5위권에 진입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는 디즈니플러스에 항의했고, 온라인상에서는 출연자, 협찬사 등이 담긴 리스트가 나도는 등 관련 제품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설강화' 제작진은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제작 드라마인 만큼 뾰족한 대안을 찾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스타들 릴레이 나눔 속 유지태 '기부자상'

유지태

연말 스타들이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배우 유지태가 22일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을 받았다. 2011년부터 NGO단체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소외된 지역과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온 공로다. 가수 옹성우는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 어린이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생명을 구하는 선물'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방송인 김재우와 조유리 부부도 한부모 장애 아동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1000만을 기부했다. 배우 조재윤은 경기 용인시 소외계층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봉준호 등 3인 美 '버라이어티 500' 선정

봉준호

봉준호 감독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국 미국 버라이어티의 '버라이어티 500'에 꼽혔다. 22일(한국시간) 버라이어티는 올해 1년 동안 성과를 토대로 세계 미디어산업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 500인을 선정하며 이들을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한국계 미국배우 스티브 연도 포함됐다.

SBS, 촬영 스태프 방역 수칙 위반 사과

SBS가 웹드라마 스태프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22일 SBS는 "일부 외부 스태프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리·감독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캠핑장에서 SBS 촬영 스태프 10여명이 모닥불 앞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모여 놀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랐다. 이들이 참여한 드라마는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온라인 공개용 웹드라마로 알려졌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휴대용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에,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5가지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원적외선 파장과 음이온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5가지 광물(겔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전국 시군구 소자본 무점포 대리점 모집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名作 名品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나면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따따 발열벨트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허리가 편안하면 만사가 편하다!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받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
1670-5465